

2023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작가 발굴을 위한 작품 공모



[공모주제]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

[대 상 지] 서울식물원(호수원 및 마곡문화관 일대)

[공모기간] 2023. 06. 01(목) - 07. 09(일)

목차

I. 공모목적

II. 공모개요

1. 공모개요
2. 작가 지원사항
3. 공모 유의사항
4. 주최 및 공모 운영 및 관리

III. 공모 주제 및 전시 장소

1. 공모주제
2. 전시 장소별 공모 세부 주제

IV. 작가 구성 지침 및 제출자료

1. 작품 구성 지침
2. 제출자료

V.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1. 심사 추진 일정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3. 심사 단계별 결과 공개

VI. 상금(사례비) 지급 및 저작권 등 유의사항

1. 상금(사례비) 지급방법
2. 저작권 및 기타 유의사항

[붙임]

1. 공모 대상지 소개
2. 「서울은 미술관」 소개

I. 공모 목적

-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공간에 신선한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고, 사라져가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공공미술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2023년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예술을 이끌어갈 차세대 공공미술 작가를 발굴하고 작품 제작 및 전시 지원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국내 작가들 대상으로 한 작품 공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올해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울식물원을 대상지로, 서울식물원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야외 전시의 출품작을 공개 모집합니다. 서울식물원과 협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는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을 주제로, 공공미술의 확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을 기다립니다.
- 국내 최초 도시형 식물원으로서 2018년 10월 임시 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정식 개장한 서울식물원은 2022년 10월 개관 4년 만에 누적 방문객 2천만 명을 돌파하며 명실상부 국내 대표 식물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서울식물원은 매일 1만여 명 이상 방문하는 서울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이자 식물자원을 비축하고 연구하는 공원 속 식물원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서울의 미래상을 제시해 왔습니다.
- 특히 이번 공모 대상지이자 전시 장소가 될 서울식물원 내 호수원은 습지식물과 텃새를 관찰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생태 교육장으로, 마곡문화관은 옛 농경지대였던 마곡지구의 물을 관리하는 배수시설을 복원한 문화공간으로, 각각 서울식물원의 생태적 특성과 마곡의 고유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서울식물원의 특성에 걸맞은 작품으로 공공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전시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서울식물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더해줄 이번 공공미술 작품 공모에 작가, 기획자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II. 공모개요

1. 공모 개요

- 공모과제
 - 주제 :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
 - 내용 : 대상지 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공미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작품 제안(장르 불문)
 - 대상지 : 서울식물원 내 호수원 및 마곡문화관 일대 (강서구 마곡동로 161)
 - 당선 작품수 : 최대 5 점
- 참가자격
 - 1) 대한민국 국적으로 미술, 건축, 조경, 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예정)인 작가(팀)
 - 2)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품 제안 및 공공미술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미술 분야에 새롭게 도전하는 작가(팀)
 - ※ 상기 두 요건은 동시 충족되어야 함. 단, 2인 이상 팀 응모의 경우 최소 1인 이상 두 요건 동시 충족 시 응모 가능
 - ※ 2인 이상 팀의 경우 다분야(과학, 무용, 극, 문학, 음악, 전통예술 등) 전문가 (큐레이터, 연출가, 연구자, 기획자) 등 포함 가능
- 공모 접수기간 및 심사 일정
 - 접수기간 : 2023. 6. 1.(목) ~ 7. 9.(일) / 접수 마감 7. 9.(일) 24:00(GMT+9)까지
 - 1차심사(서면심사) : 2023. 7. 11.(화) ~ 13.(목) (예정)
 - 2차심사(발표심사) : 2023. 7. 17.(월) (예정)
 - 당선작 발표 : 2023. 7. 19.(수) (예정)
 - ※ 심사 단계별 결과는 온라인 공개(공모 누리집) 및 작가(팀) 개별 연락
- 작품 제작 및 전시 운영 일정
 - 작품 제작 : 8월 ~ 9월 말
 - 작품 전시 : 10월 ~ 11월 (1개월 내외)
- 지원방법 : 공모 전용 누리집을 통한 서식 다운로드 후 온라인(이메일) 접수
 - 공모누리집 : 2023seoulpublicart.com
 - 이메일 : 2023publicbotanicart@gmail.com

2. 작가 지원 사항

- **작품 제작비 : 1 인(팀) 당 작품 제작 및 설치비 3,000 만 원 지원**
※ 전시 운영을 위한 예산은 별도 책정
- **당선 작가(팀) 상금 : 각 300 만 원**
- 2 차심사 대상자(팀) 작품 제안 사례비 각 50 만 원 지급
※ 발표자료(PDF), 작품 설계 등 심사자료 제작 및 작품 구상에 따른 사례비로, 최종 당선자(팀)을 제외한 대상자(팀)들에 지급
- **공공미술 분야 전문가 워크숍 및 작품 검토, 자문 제공**
- **작품 구조 · 설계 · 안전성 검토 및 작품 보험, 운송 및 철거 지원**

3. 공모 지원시 유의 사항

- 작품은 신작을 기준으로 응모할 수 있음. 단, 본 공모에 적합한 기존 작업물이 있는 경우 대상지 환경을 고려한 발전안도 응모 가능
- 작품 기획 필수 요건 및 제출자료는 본 지침서 내 해당 내용 필수 참조
- 공모 참가자는 응모작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표절·도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 3 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주최자는 수상작의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심사 시 이미지와 내용적 유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제보 또는 심사를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된다.
- 최종 선발작품의 결과는 공모 누리집, 서울시 유관 사이트 등에 공개될 수 있으며 응모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최종 당선작 수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 심의 결과 응모작 중 적격한 작품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주최 및 공모 운영 및 관리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
- 협력 : 서울특별시 서울식물원
- 사업시행/운영 : 디올림(주)
- 본 사업의 시행사(디올림)은 원활한 공모 진행을 위해 공모운영사무국을 구성한다.
- 공모운영사무국은 서울특별시의 감독하에 공모 일정과 규정을 준수하여 작품 공모를 진행하며 작품 공모 참가자의 등록, 질의 응답, 참가 작품 접수 등을 감독하고 작품 접수 완료 후, 작품 심사를 개최하고 본 심사의 전 과정을 보조한다.
- 공모 문의 : 02-2231-7205

III. 공모 주제 및 전시 장소

1. 공모주제 :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은 도시공간을 시민과 교감하는 문화적 장소로 구현하며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미술관」이 도시와 공존하는 예술적 상상력을 보여줬다면, 올해는 서울식물원에서 예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식을 공공미술을 통해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옛 마곡 평야지대에 조성된 서울식물원이 도시와 식물 생태계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거점으로 거듭났듯이, 이번 작품 공모는 예술적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의 접점을 모색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은 마곡문화관 실내 및 실외, 호수원 일대에 설치되어 '흙 없는 식물'이자 '마르지 않는 빛' 그리고 '마곡을 깨우는 소리'가 되어 시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으로부터 발아한 예술이라는 씨앗은 공공미술로 새롭게 피어나,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예술과 인간, 자연이 공생공존(共生共存)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2. 전시 장소별 공모 세부 주제

마곡문화관 외부



1. 진입로 잔디밭 | 2. 상부수조



흙 없는 식물 | Soilless Nature

마곡의 낮은 구릉 사이 벌 잘드는
풍경과 조화를 이룬 예술작품

출품작수 : 최대 2점

호수원



호수원 일대



마르지 않는 빛 | Undying Light

호수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어우러지는 작품

출품작수 : 최대 2점

마곡문화관



실내 1층 전시공간



마곡을 깨우는 소리 | Waking Up the Ma-gok

마곡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작품

출품작수 : 1점

(1) 마곡문화관 외부

- **작품주제 : '흙 없는 식물'**

마곡의 낮은 구릉 사이 별 잘 드는 풍경과 조화를 이룬 예술작품은 "흙 없는 식물"로서 서울식물원의 일부가 된다.

- **선정 작품수 : 2 점(예정)**

※ 작품유형(예시) : 다양한 친환경 재료 및 매체를 활용한 설치 작품 등

※ 마곡문화관 앞 상부 수조는 9 월 내 배수 예정. 단, 선정된 작품에 따라 활용 여부 논의 가능

대상지 정보	
위치 : 마곡문화관 진입로 잔디밭	위치 : 마곡문화관 앞 상부 수조
	
면적 : 43,500*32,000 mm (삼각형 대지)	면적 : 5,530*5,020 mm
	
	

(2) 호수원 일대

- **작품주제 : '마르지 않는 빛'**

호수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작품은 호수와 함께 "마르지 않는 빛"이 되어 호수원의 일부가 된다.

- **선정 작품수 : 2 점(예정)**

※ 작품유형(예시) : 설치, 미디어, 조명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등

대상지 정보	
위치 : 호수원 일대	
	
	
	

(3) 마곡문화관 내부

- **작품주제 : '마곡을 깨우는 소리'**

농경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물로 가득했던 과거의 공간이 빛과 소리로 깨어나 마곡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준다.

- **선정 작품수 : 1 점(예정)**

- ※ 작품유형(예시) : 평면, 미디어, 사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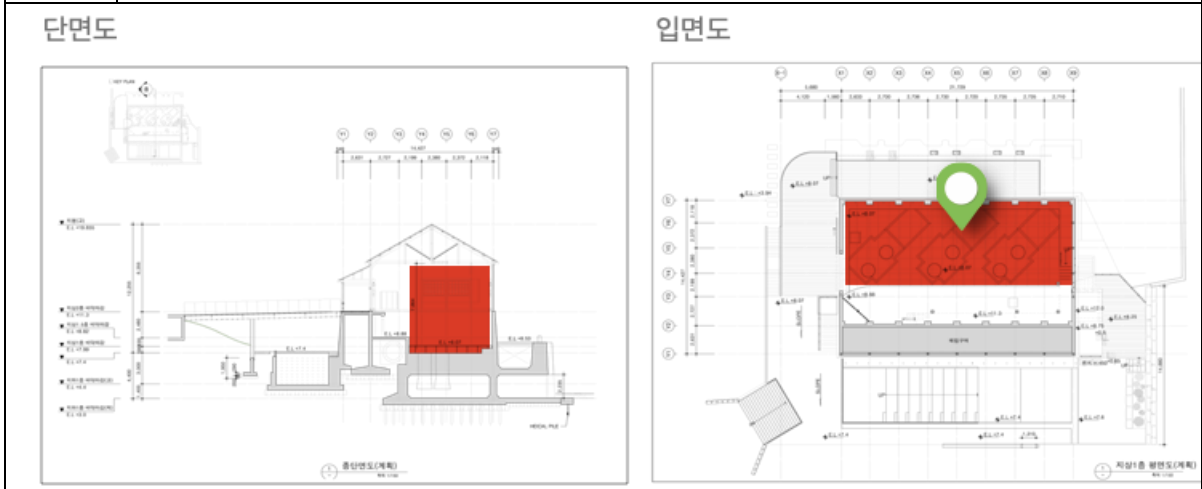
- ※ 현재 마곡문화관에는 기획전 <빛이 깨울 때,> 진행 중

(전시 10 월 8 일 종료/관람시간 10:00-17:30, 매주 월요일 휴관)

- ※ 현재 진행중인 전시를 위해 벽면에 거울이 설치돼있음. 추후 당선작품에 따라 벽면 거울 철거 또는 활용 여부 논의 필요

대상지 정보	
위치 : 마곡문화관 전시실 1층	
	
총 면적 : 9,660*7,770*7,860(H) mm	
 <p>① 출입문 측 거울(1 개)</p>	 <p>② 출입문 좌측 거울(2 개)</p>
 <p>③ 전시장 좌측 거울(6 개)</p>	 <p>④ 전시장 안쪽 전면 거울(1 개)</p>

①	4930 x 2995 x 3080(H) mm(거울면적)
②	1915 x 3320 x 3000(H) mm
	2095 x 3310 x 3000(H) mm
③	2100 x 3310 x 3000(H) mm
	2095 x 3320 x 3000(H) mm
	2075 x 3310 x 3000(H) mm
	2095 x 3310 x 3000(H) mm
	2085 x 3330 x 3000(H) mm
	387 x 3310 x 3000(H) mm
④	7687 x 7000 x 4800(H) mm



IV. 작품 구성 지침 및 제출자료

1. 작품 구성 지침

- 필수 포함 요소
 - 서울식물원의 환경, 역사성,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고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1개월 이상 야외 환경에서 운영, 유지 가능한 작품
 - ※ 작품과 연계된 시민 참여프로그램 제안 가능
- 공간 및 동선 계획
 - 매일 만여 명 이상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시민 산책로 등 동선에 관람에 방해되지 않는 동선 고려 필요
 -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예상되는 안전사고 대비 필요
- 친환경적 접근
 - 서울식물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자연 친화적 기법을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waste zero) 장려
 - 작품 또는 작품과 관련된 시설 유지, 관리에는 가급적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 고려
 - 기존 잔디 및 수목 등의 훼손 및 생육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
 - 공공장소 특성을 고려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요소 지양 (너무 큰 소음이나 너무 강한 빛 등)
- 기계/전기/소방/통신 설비 분야
 - 전시 기간 중 작품 운영과 유지관리 및 보수가 원활해야 한다.
 - 전기, 소방, 정보통신 설비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구조분야
 - 서울시와 시행사는 당선된 작품에 한하여 기술검토를 진행하여 실현가능성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 제작/설치
 - 제작/설치의 특수성 및 빠른 현장 대응을 위하여 국내 생산 및 활용 가능한 재료 사용,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본 사업의 시행사의 주관으로 당선 작가(팀)와 협업하여 추진한다.

- 당선 작가(팀)의 직접 제작/설치에 관한 비용 처리는 시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당선된 작품의 완성도 높은 구현을 위해 본 사업의 시행사와 당선 작가(팀)는 작품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검토를 통해 당선작품에 대한 일부 수정, 변경 등의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선 작가(팀)와 시행사는 반영해야 한다.
- 전시 종료 후 모든 대상지는 원상복구되어야 하며 작가와 시행사는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제출자료(필수)

- **참가신청서 / 작품개요서 / 공모참가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서식 각 1~4 호, 제출시 PDF 로 저장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작품 제안서** (별도 서식 없음. 아래 사항 준수)
 - 제출분량 : A4(가로) 20 매 내외, PDF 파일
 - 언어 및 규격 : 한국어, 미터법 표기
- **작품 제안서 내 필수 포함 내용**
 - 1) 대상지 및 공모 주제에 부합하는 **작품 기획** : 작품 구성 요소, 내용, 소재 등 포함
 - 2) **작품 제작 방법** : 작품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소재, 구조, 제작방식 등
(구조계획, 소재, 작품 규격, 설치 계획안 등)
 - 3) **작품 예상 도안** : 작품을 시각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시안 또는 공간계획
(평면도, 정면도, 좌우측면도, 배면도)
 - 4) **전시 기간 중 작품 운영 방식** : 전기, 소방, 통신 등 작품 운영에 필요한 기계 설비나 원활한 작품 감상을 위한 관람객 안내 지침 등
 - 5) **작품 제작 및 설치 예상 일정**
 - 6) **작품 제작 및 설치 소요 예산(세부 항목별 금액 표기 필수)**

V. 심사절차 및 심사기준

1. 심사 추진 일정(예정)

작품접수	1차심사	1차심사 결과발표	2차심사	최종 당선작 발표
6.1(목)~7.9(일)	7.13(목)	7.14(금)	7.17(월)	7.19(수)
공모 홍보 및 작품접수	기획안 심사 최대 2배수 선정	온라인 게시	작가 발표 심사 최종 작가 선정	온라인 게시

- **1차심사(서면심사)** : 2023. 7. 11.(화) ~ 13.(목) (예정)
 - 응모작품 제안서 서면심사 후 2차심사 대상작 최대 2배수(10점 이내) 선정
- **2차심사(발표심사)** : 2023. 7. 17.(월) (예정)
 - 1차 서면심사 통과 대상자(팀)의 작품 기획안 발표 및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당선작 선정(최대 5점)
- **심사기준 및 배점(총점 100점)**
 - 독창성(30점), 공공예술성(30점), 실현가능성(20점), 유지보수용이성(20점)
 - ※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모든 심사 과정은 블라인드로 진행

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는 미술, 건축, 디자인, 조경, 환경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하여 서울시 및 유관기관 전문가 5~7인으로 구성
 - ※ 각 단계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공모전의 참가자가 될 수 없음
 - ※ 각 단계별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중복 참여할 수 없음
- 각 단계별 심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를 비롯하여 작품 표절, 도용 등 부정행위와 관련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
- 최종 당선작 수는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 ※ 심의 결과 응모작 중 적격한 작품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심사 단계별 결과 공개

- 1차심사 결과 발표 : '23. 7. 14.(금)
- 최종 당선작 발표 : '23. 7. 19.(수)
- 발표방법 : 공모 전용 누리집 게시(2023seoulpublicart.com)
 - ※ 심사 단계별 통과자 및 최종 당선 작가(팀) 개별 연락

VI. 상금(사례비) 지급 및 저작권 등 유의사항

1. 상금(사례비) 지급방법

- 최종 당선자(최대 5 인/팀)은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상금 각 300 만원이 지급된다.
- 최종 당선 작가(팀) 중 우선협상권을 포기하거나 우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입상자에게 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 차심사 대상자 또는 최종 당선자가 2 인 이상 팀인 경우 대표자 1 인에게 상금(사례비)을 지급한다.
- 2 차심사 작품 또는 최종 당선 작품이 타인의 작품을 모방했거나 저작권 침해 등 결격사유가 드러난 경우 선정은 취소되고 상금(사례비)은 반납해야 한다.
- 2 차심사 대상 작품 사례비는 최종 당선 작품 결과 발표 이후 30 일 이내 지급한다.
- 당선 작가(팀) 상금은 당선 확정일 이후 30 일 이내 50%를 지급하며, 작품 설치 완료 시점 30 일 이내에 50%를 지급한다.
- 상금(사례비)에는 세금 및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저작권 및 기타 유의사항

- 공모 작품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다.
-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 시 공모전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수상작)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고,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또는 상품)으로 대체될 수 있다.
- 공모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며 공모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거나 판결한다.
- 작품 전시기간은 1 개월(예정) 전시기간은 변경(연장 또는 축소)될 수 있다.
- 작품 제작 및 전시, 작품에 대한 2 차적 저작물(아카이브, 홍보용 이미지 제작 등)에 관한 협의와 계약은 별도로 진행한다.

붙임 1 공모 대상지 소개

1. 공모 대상지 개요

서울식물원

'2019년 5월 1일 개장'

서울식물원은 일상 속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공원'과 식물을 전시하고

교육하는 '식물원'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보타닉 공원(Botanic Garden + Park)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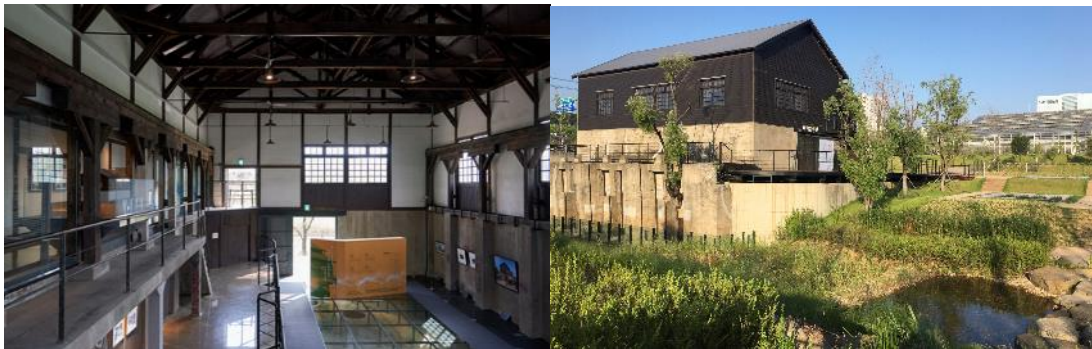
-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원
- 면적은 50만 4천 제곱미터(m²)로 여의도 공원의 2.2 배(축구장 70 개 크기)
- 식물원과 공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원 속 식물원
- 2027년까지 국내·외 기관과의 교환 및 증식을 통해 식물 8천 종 이상 보유 목표

[호수원]



- 호수면적 47,000 m² 둘레 약 1 km, 세로폭 약 420m, 가로폭 약 151
- 호수 주변으로 산책길과 수변 관찰 데크 조성된 공간
- 습지식물과 텃새를 관찰할 수도 있는 휴식 공간이자 생태 교육장

[마곡문화관]



- 야외마당 면적 1,330 m² / 실내(기획전시실) 면적 327.94 m²
- 서울식물원 내에 위치한 마곡문화관은 2007년 등록문화재 제 363호
-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으로 등록
- 일제강점기인 1927~28년에 건립된 '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 사용
- 현존하는 한국 근대 산업 문화유산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 있는 건축물
- 1980년대 도시화로 인해 용도 폐지가 되었고 2017년부터 보강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해 옛 형태와 구조로 복원
- 1층, 기획전시실(327.94 m²)과 2층, 상설전시실(57.16 m²), 배수펌프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하 공간으로 구성

2. 공모 대상지 역사(마곡)

마곡 : 일대에 삼[마(麻)]을 많이 심었던 골짜기[곡(谷)]에서 유래



겸재 정선(1676~1759), <중해청조>(1740), 비단에 채색, 23.0×29.2 cm, 간송미술관 소장품

- 마곡동에 있던 자연마을로는 마결(麻結), 옷말, 아랫말, 고시네촌, 뒷개말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 또한 마곡동은 예로부터 '고고마진 나루터'가 있었던 어촌이었다고 한다. 겸재 정선이 그린 그림에 양천현아(현재의 가양 1 동 239 번지 일대)에서 조수가 밀리는 소리를 들으며 감개에 찬 모습을 그림(중해청조, 1740)으로 나타내었는데 그 그림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 포구가 '고고마진 나루터'이며 지금의 마곡동으로 1892년 을축년 대홍수 때 양천 뚝방을 쌓으면서 육지가 되었고 지금은 서남하수처리장이 들어서 있다.

3. 공모 대상지 주변 여건



- 마곡지구
서울 마곡지구에 LG 그룹 입주를 시작으로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서울 광화문과 강남, 여의도에 이어 서울 4대 업무지구이다. 면적은 110 만평의 크기로 LG 사이언스파크의 연구동이 20 개, 롯데, 코오롱,S-오일등 100 여개의 회사가 입주하고, 마곡지구내 인구총사만 16 만명 입주된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다.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SEOUL IS MUSEUM ARCHIVING PROJECT

서울시는 2016년부터 '서울의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된다'는 취지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효율과 상업성 중심으로 변화된 도시를 공공미술을 통해 시민이 머물고 교감하는 문화적 장소로 변화시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의 도시공간에 신선한 예술적 상상력과 인간적 정취를 담고, 사라져가는 장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서울시민이 주인으로서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서울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 공간에서 함께 만드는 공공미술, 『서울은 미술관』 3 가지 방향

1. 지역에 시민의 장소를 만드는 프로젝트

일상적인 도시공간에 공간 가치를 살릴 수 있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그 공간을 더욱 의미 있는 장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새로운 장소를 만드는 지역단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나 공모를 통해 발굴된 시민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여 작품을 구현하고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합니다.

2.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서울은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시민은 더 이상 작품의 관람객이나 수동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작품을 구성하는 능동적 파트너이자 작가입니다. 공공미술은 모두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미술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대화의 장을 열며, 도심 속 전시와 축제 등의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3. 『서울은 미술관』의 추진 기반을 마련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서울 공공미술의 담론 형성과 정책 사례를 발굴합니다. 또한 기록화 사업을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 사례를 지속가능한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갑니다.